



참여연대 공동대표: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보만 하이텔PSPD,너유누리유-텔:참여연대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병무비리 철저수사 및 명단공개와 엄중 처벌 촉구 집회의 건
날 짜 1998. 6. 19.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참여연대, '병무비리의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와 자 엄중처벌 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일시: 1998년 6월 19일 12:00-13:00 금요일 장소:용산 국방부 정문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오는 6월 19일 (금)요일 12:00-13:00 용산 국방부 정문앞에서 '병역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명단공개, 관련자들의 공직사퇴 및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최근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 민간인과 병무청, 군인사담당자 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병역면제, 사병배치 편의등 병무전반에 걸쳐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더우기 군고위장성과 고위공직자 등이 이러한 병무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 이에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국방부가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비리 관련자 전원을 공개하고, 공직사퇴 및 엄중처벌을 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비리수사를 확대하여 병역을 둘러싼 뿌리 깊은 비리를 근절하고자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별첨자료 : 집회 프로그램 1부

병무비리의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 및 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집회

■ 장소 : 국방부

■ 일시 : 1998년 6월 19일 (금) 12:00-13:00

■ 집회취지

- 최근 밝혀진 원용수 준위의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 명단 공개 및 엄중 처벌을 촉구
-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장성 및 고위공직자들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명단 공개 및 공직사퇴
-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병역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병역을 둘러싼 뿌리 깊은 비리의 완전한 근절할 것을 촉구

■ 집회구호

국방부는 병무비리 관련자 전원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라
병무비리 관련 공직자는 전원 사퇴하라
날림수사·감추기의혹 웬말이나 병무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병역 비리수사 확대하여 비리구조 척결하자
돈있으면 병역면제, 돈없으면 국방의무, 국민은 분노한다

■ 집회순서

사회자 : 김성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1) 집회취지 설명 : 사회자
- 2) 시민규탄발언 : 참여연대 숙년회 회원
이태호 (참여연대 기획부장)
- 3) 성명서 낭독 : 김형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